



국악계에도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가야금, 거문고, 해금을 연주하는 세쌍둥이

국악그룹 IS

국악계에서 '퓨전국악'이 화두가 된 것이 어제

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세쌍둥이 국악 그룹 'IS'

(Infinite Sound)는 기존의 퓨전국악과도 또다른 독특한 음색을 선보이고 있다. 국악기를 개조하지 않는 것은 물론, 서양악기와 전자음을 배제하고 정통국악에 중심을 뿌리내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윤도현의 러브레터>, <오늘 아침 이문세입니다> 등의 음악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궁S>, <향단전> 등 드라마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하는 등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국악평론가 윤중강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을 두고 '국악계에서 기다려왔던 스타'라고 말한다.

글 윤중강 국악평론가 | 사진 박정훈

세쌍둥이의 삼현(三絃) 탐색

통일신라 시대, 거기에는 삼현삼죽(三絃三竹)이 있었다. 당시의 음악을 대표하는 악기인 삼현이란 가야금, 거문고, 향비파를 말한다. 가야금과 거문고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지만, 향비파는 한국악기의 주류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후 고려시대에 해금이란 악기가 이 땅의 악기로 자리 잡는다. 그리고 지금 21세기 한국음악의 삼현은 가야금, 거문고, 해금! 세쌍둥이 자매 국악그룹 IS가 각각 전공하는 악기다.

IS는 2006년 가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85년 1월15일 태어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화제가 됐다. 제왕절개로 꺼낸 순서대로 언니 동생

이 결정된 이들의 이름은, 김진아 - 김선아 - 김민아! 어머니가 성악을 했던 관계로 일찍이 음악적인 환경에서 여러 악기를 배웠던 세 자매는 '국악기'를 전공으로 택하게 된다. 막내인 민아가 해금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어서 진아는 가야금, 선아는 거문고를 선택했다. 선화예술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을 졸업했다. 그리고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과정(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들은 같은 대학원에 진학했을 때, 특히 기뻐했다고 한다.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낙방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아가 제일 조마조마했다고 한다. 국악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민아지만, 현재 국악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악기가 해금이고, 그래서 해금의 경쟁이 더욱 치열했기 때문이란단다. 세쌍둥이는 동세대의 국악 전공자 중에서도 우수한 편에 속하지만, 그들은 또한 여러 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일단 세쌍둥이를 보면, 세 사람의 공통점에 접근한다. 그러나 그들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비슷한 듯하면서도 다른’ 점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가야금을 전공하는 진아는 언니답게 진취적이다. 그의 가야금에는 에너지가 넘친다. 세쌍둥이 그룹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솔로 연주자로 데뷔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

거문고를 선택한 선아는 ‘일반적’인 국악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그는 누구보다도 동세대의 음악에 관심이 많고, 홍대앞 클럽 음악에도 많이 끌린다. 마치 젓가락처럼 보이는 단단한 대나무

로 만든 ‘술대’로 현을 힘차게 내리치는 매력을 갖고 있는 거문고는, 국악기 중에서 특히 비트(beat)가 살아 있는 악기로, 선아는 내심 거문고가 클럽 음악에도 한몫을 할 수 있는 악기로 자리매김하길 바라고 있다.

세쌍둥이의 막내인 민아는 다소곳한 매력이 있다. 그의 스승은 다른 해금 전공자들에게 이런 말을 한다. “해금을 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민아다. 그가 어떤 자세로 연주를 하는지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해라.” 뉴에이지 분위기의 서정적인 음악이 대세인 요즘 퓨전국악에서 해금은 주류 악기로 자리매김했다. 민아의 성격과 행동은 이런 음악과 참 많이 닮아 있는데, 그 누구라도 민아의 해금을 연주하는 단아한 모습에 끌릴 거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우리는 가끔 이런 의문을 갖는다. 세쌍둥이의 세 악기에도 적용된다.

악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캐릭터가 사람의 성격과 행동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의 성격에 따라서 자신과 맞는 악기를 선택한 것이 모르겠으나, 세쌍둥이가 연주하는 악기는, 각자에게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다.

“서양악기는 최소화하고 국악의 순수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죠.”

‘세쌍둥이’의 ‘세 악기’ 혹은 ‘세 색깔’이 합쳐져서, 지난 2007년 봄 <스텝 원>이라는 음반 하나가 세상에 선을 보였다. ‘퓨전국악’을 자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경향의 음반이 하나 더 나왔구나 싶겠지만, 이 음반은 기존의 것들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사실 이전 퓨전국악에서 국악기의 비중은 높지 않았다. 전자음 혹은 서양악기로 ‘화음’을 넣어서 ‘배경’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 마지막에 국악기 하나가 주선율을 연주하는 음반도 있다. 지난해 청룡영화상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겸손한(?) 수상소감이 화제였다. 잘 차려진 밥상에 자신은 숟가락만 놓았다고 했던가? 모두 그렇지는 않겠으나, 이미 만들어진 음악에 국악기 하나만을 덧입힌 것에 불과한 퓨전국악들도 존재한다. 이런 현실에서 세쌍둥이의 음반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국악기 소리를 최대한 살리려 했다. 컴퓨터의 전자음이나 서양악기는 배제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컴퓨터로 미디 작업을 한 뒤, 거기에 국악기를 입히는 방식을 ‘지양’하고, 국악기 소리가 주도적으로 존재하는 가운데 다른 소리들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 세쌍둥이의 음반을 직접 접하

지 못한 시청자들이 드라마 <향단전>의 음악을 들으면서 기존의 국악과 ‘뭔가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된 건 바로 이렇게 국악의 생생한 원음을 살리려 했기 때문이다.

둘째, 기존의 퓨전국악과 다르게 신선한 느낌으로 접근했다. 그들의 음악적인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기존의 퓨전국악 음반의 주도적인 세 가지의 성격을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 나는 퓨전국악에서 특히 다음 석 장의 음반 혹은 경향을 일단 높이 산다. 그 세 음반의 주인공은 정수년, 양방언, 숙명가야금연주단. 정수년의 해금 음반은 정갈하고 단아하다. 정수년이란 해금 연주가의 기량이 뉴에이지적인 경향을 띤 음반에서도 빛이 난다. 반면, 양방언은 자신의 음악을 뉴에이지로 묶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의 음악에서 ‘아시아적 월드뮤직’의 가능성을 본다. 한국, 몽골 등의 민속악기 혹은 민속적인 선율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와 어우러진다. 그러니까, 그의 음악에는 민속악기, 피아노, 오케스트라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만나는 것이다.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음반은 우선 ‘기획’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숙명가야금연주단의 송혜진(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숙명가야금연주단 단장)과 박승원(음반기획자, 서울음반 프로듀서 팀장)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수작이다. 서구의 클래식이나 팝의 감수성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가야금을 다가가게 하는 방법을 두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세 가지 경향은 ‘퓨전국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고, 저마다 성공을 했다.

IS는 이들 경향을 비껴가면서 자신들만의 방향



가야금 연주를 맡는 첫째 김진아.

을 구축하려고 노력했다. 프로듀서 원일(작곡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을 비롯하여, 장영규, 방준석 등 유명한 영화음악 감독들이 참여하면서 세쌍둥이 고유한 색깔을 구축하려고 애를 썼다. 아직 이런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또한 대중들이 확실하게 그들의 음악적인 색깔에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IS의 이런 경향은 점차 대중 사이에 뿌리를 내릴 거다. 그리고 이런 접근은 앞으로 퓨전국악의 새로운 경향에 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IS만의 음악적인 색깔, 그 세번째는 그들의 음악에서 ‘목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빌리면, 세쌍둥이에 있어서 ‘노래’

는 ‘제4의 악기’란다. 그들의 목소리는 일반적인 국악적 발성과는 다르다. 그들은 그들대로 노래한다. 20대 여성의 목소리로 노래하지만, 다른 목소리에 비해 좀더 순수함이 살아 있다. 이런 순수함은 실제 IS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한데, 계속 듣다보면 신비주의적인 느낌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IS는 이렇게 그들만의 고유한 음악적인 색깔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그들을 다룬 많은 기사는 모두 ‘화제성’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의 매스컴은 국악을 하는 세쌍둥이의 ‘보여지는’ 특이성에만 관심을 가질 뿐 실제 그들의 음악적인 속내를 살피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때론 ‘화제성’에 비해서, ‘음악성’은 따르지 않을 거란 위험한 예단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만큼의 경력과 실력을 갖춘 다른 젊은 연주자들이 각종 문화적 지원의 혜택을 받는 것에 반해서, 그들은 소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혹은 서울문화재단을 비롯한 각 지역단체의 예술지원사업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적잖은 힘이 되고 있다. 세쌍둥이가 이런 지원제도에 적극적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지원제도에서 혜택을 받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다. 국악계에서도 IS가 그들만의 고유한 색깔을 갖고 국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IS의 입장을 잠시 대변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지금 국악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그들에 대한 매스컴의 관심에 반해서, 국악계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국악계 내부의 인력’으로 키워야 할 젊은이로 생각하지 않는



거문고 연주를 맡는 둘째 김선아.



해금 연주를 맡는 셋째 김민아.

경향이 있다. IS는 이런 국악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자신들의 예술적 입지를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쉽게 해체하지 않아요.”

세쌍둥이로 태어난 건, 일단 자타가 인정하듯이 ‘이점’이다. 그리고 이런 ‘이점’을 그들은 더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단 세 사람의 ‘양상블’과 관련해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요즘 많은 퓨전국악 그룹이 있다. 그들은 음악적인 견해차로 종종 부딪친다. 그것을 국악 애호가들이 잘 모를 뿐이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심해서 그룹이 해체되거나, 구성원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퓨전국악이 크게 주목한 받기 시작한 것은 대략 2000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십년이 안 된 이 시점에서 초창기의 멤버가 그대로 지속된 퓨전국악 그룹은 거의 없다. 세쌍둥이는 단언한다. IS가 깨질 걱정은 전혀 없다고.

그들은 한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연습실을 정해서 만날 필요도 없단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오히려 긴장감이 좀 떨어질 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시공을 공유했던 그들은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다. 요즘 젊은 국악 그룹들은 여러 지원제도의 혜택을 입어서 ‘다년간 지원 사업’으로 여러 해 동안 지원금을 받아 공연과 음반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한 해외의 ‘아트 마켓’에 가기도 하지

만, 종종 지원을 받았던 실제 구성원과 다른 사람들이 공연을 하게 되기도 한다. 구성원이 바뀌거나, 혹은 구성원들 간의 일정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쌍둥이는 이런 염려가 가장 적은 단체일 것이다.

**“국악계의 ‘조수미’가 되어
세계에 국악을 알리고 싶어요.”**

IS는 ‘세쌍둥이’라는 화제성의 이점으로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보다 해외에서 한국음악 혹은 한국악기에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다. 여기서 잠시 일본의 쌍둥이 할머니 얘기를 하려 한다. 1892년 8월 1일 쌍둥이로 태어난 이 쌍둥이 할머니—나리타 킨(成田金)과 가니에 긴(蠶江銀)—은 1990년대 일본의 최고 국민 스타였다. 쌍둥이 할머니가 매스컴에 주목을 받고 있을 때, 일본의 초등학교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은, 인기 가수나 인기 배우가 아닌 쌍둥이 할머니였을 정도였다. 긴 할머니는 100세 때 NHK 방송에 장수 할머니로 출연했다. 두 할머니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일본을 경제대국 정도로 알았던 나라들은 일본이 단란한 ‘가족국가’라는 것을 알았고, 일본이 그 어떤 나라보다 ‘장수국’이란 걸 두 할머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확인했던 것이다. 쌍둥이 할머니는 일본의 긍정적인 이미지에 크게 기여를 했고, 이 할머니가 타계했을 때 일본과 가히 관계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에서조차 매스컴에서 할머니의 타계를 소개했다. 일본의 쌍둥이 할머니의 얘기를 하는 이유는, 비록 연배와 성격이 다를지라도, 한국의 세쌍둥이 IS도 한국과 관련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소지가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크다는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일본의 쌍둥이 할머니가 일본사회의 ‘단란함’과 ‘건강함’의 상징적인 마스코트가 되었던 것처럼, 한국의 젊은 세쌍둥이도 해외에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낼 마스코트가 될 수 있으며, 이미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5년에 열린 국악축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의 두 차례 해외공연에 IS도 참여했다. 러시아 사할린 공연은 교포위원공연 형식을 표방했고, 베트남 공연은 한류(韓流)와 관련된 ‘드라마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본래의 성격이 국악 혹은 국악기를 해외에 알리는 것을 전제로 했음은 물론이다. 특히 사할린 지역에 한국교포들이 처음 도착한 코르사코프 항구에서 벌인 퍼레이드의 맨앞에는 세쌍둥이가 있었다. 새로운 느낌으로 만든 한복 의상을 입은 세쌍둥이는 러시아인과 고려인들에게 코리아의 새로운 상징이 되어 많은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무대에서는 한국악기의 매력을 관객에게 알려주었다.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도 인기는 여전했다. 본연의 역할인 무대 위의 ‘연주가’로서만이 아니었다. 연주 후에 펼쳐진 ‘대장금 패션쇼’에서 IS는 한국의 궁중의상을 입은 모델로 나와, 페스티벌 레이디로도 활약했다.

한류는 언제까지 지속될까?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 우리도 한때 홍콩스타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다 말았다.’ 지금 한류는 이른바 ‘얼짱’의 대중적인 아이돌 스타에 한정되어 있다. 진정한 한류를 이끌려면, 이제 한국문화의 본질이 잘 융해되



어 있으면서, 아시아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런 것이야말로 ‘한류’란 이름에 걸맞는 것 아닐까.

국악계에도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하면서 국악을 강조할 때,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 있고, 때론 역효과도 생길 수 있다. ‘국악’을 ‘국악’이란 방식으로 알릴 때, 대중들은 관심이 없거나 어려워하거나, 외면할 수 있다. 이제 전통예술 분야에서도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아니 전통예술 분야에서도 이미 엔터테이너가 존재해왔다. 여성국극의 ‘임춘앵’이 그랬고, 판소리 경험을 기반으로 드라마, 영화를 오가는 오정해도 훌륭한 엔터테이너이다. 국악의 예술화는

명인 명창들에 의해 이뤄질지 몰라도, 국악의 대중화는 이러한 엔터테이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한국의 전통적인 예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과 해외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면, 국악계에서도 이런 엔터테이너의 소양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음악성이란 ‘기’(기예)와 대중성이란 ‘끼’(재주)를 두루 갖춘 IS가 있다.

글쓴이 **윤종강** 서울대 국악과와 일본 국립 동경예술대학 대학원 음악연구과를 졸업했다. 제1회 객석예술 평론상 수상으로 국악 분야의 공식적인 평론가 1호로 인정받았다. 평론집으로 <국악이 내게로 왔다>, <국악이 바뀌고 있다>, <국악을 방송에 담다>, <가치와 취향을 넘다> 등이 있다.